

원주의 문화정체성과 도시이미지는 태장2동 마을을 통해서도 설명 가능하다. 생명의 땅 원주와 맥을 같이하며, 군사도시 원주의 상징적 공간이 바로 태장2동이다. 현재 원주시는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,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. 태장2동도 캠프 통의 반환, 제1야전군 사령부 이전, 국군병원 부대 해체 등 군인과 상생했던 시간을 넘어 마을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.

태장2동은 왕에게 선택받은 마을로서 원주 북부에 자리잡은 생명의 땅이면서 명당이었던 것이다.

생명의 땅 태장2동의 주인은 주민이다.  
원주시를 상징하는 마을이었기에 주민의 주권보다는 시민의 주권이 강했다.  
생명의 땅. 그 주권을 시민에게서 되찾는 것이 필요하다.

‘원주를 느끼고자 한다면 태장2동으로 가면 된다.’

원주를 스토리텔링하고, 스토리두잉하는 것이  
태장2동의 미래희망이다.



## 태연자적 태장2동

# 태연자적 태장2동

태장2동 이야기 마을기록화 사업

이야기담

## 泰然自適 태장2동

태연자적(泰然自適)

泰然(태연) : 태도나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사로움  
自適(자적) : 아무런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길

태연과 자적의 합성어로 원주시의 과거와 현재, 미래를 대표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을인 태장2동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제는 시민과 상생하는 원주의 상징마을로 여유롭게 태연자적하며 곳곳이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.